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0월 29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4장 17-22절

설교제목 :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한국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레위기 24:1-16까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오늘은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24:17은 표면적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레 24:17의 말씀은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죄의 처벌에 대한 규제 중에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즉 레위기 24:17-22의 본문의 맥락은 가해자에게 동일한 행동으로 보복하는 것을 규정한 소위 동해 보복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해복수법은 제한된 보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동해보복법이 허용되었습니까? 제한된 보복이 허용된 것은 결국 핵심은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보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분이 풀리는 것입니다. 즉 동해보복법은 이러한 과도한 보복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새 언약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마5:38-39)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을 허용했는데, 이제 어떠한 복수도 삼가라는 것입니다. 보복의 권리 자체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을 주십니다. 이 예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주로 히브리인들은 오른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것은 손등으로 친 경우와 뒤에서 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풍습에서 손등으로 치는 것은 엄청난 인격모독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2배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때렸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엄청난 모욕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을 포기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또한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 고발하다는 단어가 재판하다는 뜻도 있지만, 비난하다 헐뜯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재판을 염두한 상황만이 아니라, 재산상의 분쟁이나 강도를 당한 상황에서 속옷조차 취하려는 상대방에게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겹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속옷은 가격도 싸고 보잘 것 없는 가치이지만, 겹옷은 가격도 비싸고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에서 밥에 덮고 자야 하는 필수품이므로 전당잡힐 수조차 없는 품목이었습니다.(출22:26,신24:13) 이것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지를 동행하고”** . ‘억지로 가게 하거든’에 해당하는 ‘앙가류오’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페르시아 국왕이 조서를 전달할 때 사람들을 징발하여 짐을 지게 만들거나 문서를 전달하게 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로마에서는 이러한 양민 징발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로마의 식민지 하의 유대에서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규정한 거리가 오리입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기꺼이 오리를 더 동행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 이것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여야 할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목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3-44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지만,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따라서 후자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리잡았던 보편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기에 이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상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처럼 불가능한 요구를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너희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44절) 결국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45절) 여기서 되리라는 의미는 입증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증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내 삶에 자리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됩니다. 우선 이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온 자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손양원목사님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쇠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비교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크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 온전함에 참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부인과 죽음을 경험한 자입니다.(마16:24) 마태복음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일어나는 결정적인 전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눅9:23) 이것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기도는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대로 살 수 없습니까? 매일매일 자기부인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진정한 한국교회의 개혁은 바로 진정한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분명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동해복수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예수님은 구약의 동해복수법을 금지하시고,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개혁은 참된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원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